



## 학회소식

###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변호사),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궁식 교수)는 지난 4월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공법의 근본개념들’을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희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대법원 판결례로 살펴본 공익개념’ 주제발표에서 “공익 판단은 ‘국민의 자치’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의회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의 자치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법원은 의회나 행정부가 이미 공익 판단 권한을 행사한 후에야 공익 판단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허성욱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 교수)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 교수)오는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15:00 ~ 17:00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제13호관 218호에서 2019년도 제2회 판례연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주제와 발표자,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의 비판적 고찰 : 이충훈 교수 (인천대학교)  
토론에는 박희호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참여한다.
- 보증채무의 부종성 (대판 2018. 5. 15. 2016다211620) : 위계찬 교수 (한양대학교)  
토론에는 전경운 교수 (경희대학교)가 참여한다.

###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한영수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2019년 3월 30일(토) 13:30 ~ 18:00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관 105호에서 『고강도 형벌정책 - 범죄예방의 해결책인가?』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범죄론을 바탕으로 한 형벌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상세화 : 박경규 박사(경북대 법학연구원)  
토론에는 구길모 교수(충남대)와 황태정 교수(경기대)가 참여하였다.
- 고강도 형벌정책과 적정 양형의 문제 : 김한균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에는 류부곤 교수(경찰대학)와 이경렬 교수(성균관대)가 참여하였다.
- 전자장치 장기부착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강민구 박사(국회)  
토론에는 김혜경 교수(계명대)와 최준혁 교수(인하대)가 참여하였다.

###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교수)는 지난 2019년 5월 18일(토) ~ 19일(일)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그랜드 볼룸에서 『부패범죄 척결과 효과적인 범죄수익 환수방안』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5월 월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추정보전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김대권 판사(안산지원)  
토론에는 박철우 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와 이근우 교수(가천대)가 참여하였다.
- 범죄수익환수 관련법률의 개정동향과 의의: 오진세 검사(법무부)  
토론에는 황문규 교수(중부대학)가 참여하였다.
-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대한 형법해석적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 최호진 교수(단국대)  
토론에는 김진 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가 참여하였다.

## 동정

故 진승록 前 서울대 법과대학장  
간첩 방조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던 故 진승록 前 서울대 법과대학장이 5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지난 16일 진 전 학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前학장이 간첩 활동 내

지는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심지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과거에)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판결이 잘못됐다.”고 했다.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한 진 前 학장은 1944년 국내 최초의 민법책 ‘민법 총칙 상권’을 펴낸 민법학의 선구자다.